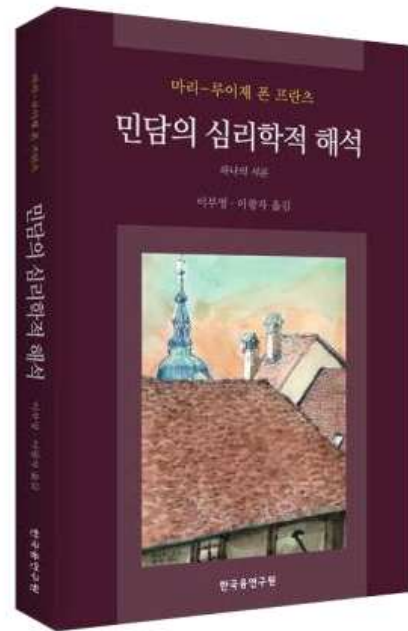


『민담의 심리학적 해석』

마리-루이제 폰 프란츠, 이부영 · 이광자 옮김, 한국융연구원, 2018

Contents

1. 민담의 기원에 관한 학술
2. 민담, 신화, 그리고 전설
3. 민담 해석의 실제
4. 한 민담의 해석 “세 개의 깃털”
5. 민담 “세 개의 깃털” 계속
6. 민담 “세 개의 깃털” 계속-민담의 종말
7. 남성의 그림자
8. 아니마의 도발
9. 민담 속의 여성, 그림자, 그리고 아니무스
 - 9.1. 그림자
 - 9.2. 여성의 아니무스
 - 9.3. 관계의 주제



제1장. 민담의 기원에 관한 학설

- “개인적 무의식이 본질적으로 한때 의식되었지만 잊혔거나 억압되어 의식에서 사라진 내용들로 이루어진 데 비해 집단무의식의 내용은 한 번도 의식에 존재한 적이 없고, 따라서 개인적으로 획득된 적이 없다. 그것의 존재는 오직 유전 덕분이다.” (칼 융, 『원형과 집단적 무의식』)
- 민담은 집단적 무의식의 정신과정의 가장 순수하고 단순한 표현이다. 그러므로 무의식을 과학적으로 연구할 때 민담의 가치는 모든 다른 자료들을 능가한다. 민담은 원형을 가장 단순하고, 가장 간결하며, 또한 가장 정확한 형상으로 묘사한다. 이 순수한 형상으로 원형적 상들은 보편적 집단정신에서 일어나고 있는 심적 과정들을 이해하는 데 가장 좋은 징후들을 우리에게 제공한다.(pp.11-12)
- [19세기] 루트비히 라이스너라는 사람이 있었다. 내 생각에 그는 큰일을 한 사람인데도 그를 기억하는 사람이 드물다. 그의 가설은 민담과 전설의 기본 주제는 본래 꿈에서 나

왔다는 것이었다. 그는 일방적으로 악몽에 집중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반복되는 전형적 꿈과 민간전승의 주제 사이의 연관성을 제시하고자 했다.(p.19)

- 민담과 그 유화의 수집 이외에 이른바 문학 학파의 노력이 대두되었다. 이들은 순전히 형태적 관점에서 신화, 전설, 오락 동물 트릭스터 이야기, 그리고 고전적 이야기 등 여러 가지 이야기 장르의 차이점에 관심을 가졌다. ……현대의 학문적 활동이 빚어낸 이 밖의 집단은 민족학자, 고고학자, 신화와 비교종교학의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집단이다. 그들은 융과 그의 심리학에 관해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다. 그런데도 신화적 주제를 융의 가설을 제쳐 놓은 상태에서 해석하면서, 융이 발견한 것들을 간접적으로 이용하려 든다.…… 미르체아 엘리아데도 간혹 이에 속한다.(pp.21-22)
- 원형은 인간과의 관계를 도외시하면 생생하게 그려낼 수 없다. 마찬가지로 모든 원형상들이 생겨나는 살아있는 모상(母床)을 탐구한다고 할 때, 심층심리학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비록 신화는 집단적인 성질을 가진 것이지만, 그것은 또한 가장 긴밀하고도 가장 깊이 인간과 결부되어 있다.
- 심리학은 - 다른 모든 학문과 달리(서) - 스스로에게 감정을 간과하도록 허용할 수 없다. 심리학은 외적, 내적 요소들의 정동(emotion)적 가치를 관찰자의 감정반응까지 포함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 민담 해석에서 정동적 요소의 고려가 변덕스러운 기분의 표출이거나 유아적으로 감정을 한껏 소진하는 것이 아님을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의식적인 입장에서 볼 때 감정은 필수불가결의 것이다. 심리학적 방법이 정신현상에 가능한 한 합당한 것이 되려면 감정은 결코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이다.(p.24)
- 프로이트식 해석은 모든 민담을 이른바 프로이트 도식에 결합하고자 한다. 융식의 해석은 이에 반해서 민담 스스로 말하게 하기 위해 노력한다. 확충의 방법을 통하여 우리는 민담이 스스로 해명할 수 있는 데까지 이르고자 한다.(p.27)
- 어떤 한 개인이 원형적인 체험을 했을 때, 예를 들어 독수리가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오는 압도적인 꿈을 꾸었다고 할 때, 그것은 단순히 어떤 사고 모형만이 아니다. 사고모형이라면 사람들은 이 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아, 그래요. 독수리는 신의 사자이지요. 독수리는 제우스와 주피터의 사자들 중의 하나였습니다. 북아메리카 신화에서 독수리는 창조신으로 나타납니다.” 등등. 지적인 면에서 이런 말은 전적으로 옳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형을 확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경우, 사람들은 정동적 체험을 간과하게 된다. 왜 이 꿈에 독수리가 등장하는가? 왜 까마귀는 아닌가? 여우나 천사는 왜 아닌가? 신화학적으로 볼 때 천사와 독수리는 같은 것이다. 그 둘은 안젤로스, 즉 하늘과 저승, 신격의 날개달린 사자이다. 그러나 꿈꾼 사람에게는 자신이 천사와 천사가 그에게 의미하는 모든 것들에 관해 꿈을 꾸는 것과 긍정적, 부정적 반응을 일으키는 한 마리 독수리에 관해 꿈을 꾸는 것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 미르체아 엘리아데, 오토 후트, 에리히 프롬, 그 밖의 학자들이 어느 쪽 형상도 다 저승의 사자라고 주장하지만, 우리는 꿈꾼 사람의 정동반응을 덮어놓고 건너뛰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지적으로 같은 것이지만 감정적으로는 큰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체와 꿈이 생긴 상황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지적인 입장을 대표하는 학자들은 융 심리학의 모든 연구결과들을 학자풍 사고의 낡은 방식으로 환원하면서 융이 신화학에 도입한 가장 중요한 요소를 도외시켰다. 그것은 신화의 주체가 생겨나는 인간적 토대이다. …… 신화학에서는 우리 자신, 즉 개별적 인간이 상징적 주체들의 땅인 셈이다. 이 사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pp.28-29)

- 민담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늘 내 강의를 달달 외면서 배워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스스로 민담을 해석해보도록 하라고. 그래야만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해석은 하나의 예술, 궁극적으로 해석하는 사람 자신에 좌우되는 하나의 기예(技藝)이다.(p.32)
- 융심리학에서는 왜 신화와 민담에 관심을 가지는가? 융은 민담을 비교하면서 정신의 해부학을 공부할 수 있다고 말한 일이 있다. 신화나 전설, 그리고 그 밖의 복잡한 신화적 자료에서는 오직 많은 문화자료를 두루 거쳐야만 인간 정신의 기본 전형에 접근할 수 있다. 이에 반해서 민담에서는 특수한 의식적 문화자료가 훨씬 적기 때문에 민담은 그 기본 전형을 보다 분명히 반영한다.(p.32)
- 우리는 꿈을 언제나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보아야 하고 결론은 마지막에 내리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꿈은 언제나 분석가도 피분석자도 미리 알 수 없는 새로운 메시지를 보내기 때문이다.(p.33)
- 민담은 하나의 추상이다. 민담은 응축되고 결정의 형태가 된 지역설화의 추상이다. 이렇게 민담은 널리 전파될 뿐만 아니라 더 잘 기억된다.(p.37)

제2장. 민담, 신화, 그리고 전설

- 원형적인 이야기는 대부분 개인적인 체험에서 나온다고 나는 생각한다.(p.38)
- 어떤 이야기가 특정한 지역에 뿌리내리면 지역전설로 변해버린다. 만약 이 이야기가 수 중식물처럼 뿌리가 뽑힌 채 이리저리 돌아다니면 그것은 하나의 추상적인 민담을 만든다. 그것이 뒤에 다시 어떤 지역에 뿌리내리면 그것은 다시 지역전설이 된다. 전설을 신체에 비유한다면, 민담은 벌거숭이 골격이라 할 것이다. 그것은 정신의 가장 단순하며 기본적인 구조이며 파괴될 수 없는 핵이다. (p.39)
- 만약 큰 신화가 그것이 속한 문화와 함께 소멸하면 민담의 기본 주제가 살아남고 이동하거나 그 나라에 머문다. 민담은 나에게 바다와 같다. 전설과 신화는 그의 파도이다. 하나의 민담이 높이 솟아오른다. 그러면 신화가 된다. 다시 아래로 내려앉으면 민담이 된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먼저 내렸던 결론으로 되돌아온다. 민담은 보다 단순한, 그러나 보다 기본적인 구조를 반영한다. 그것은 정신의 벌거숭이 골격과 같다. 이에 반해서 신화는 오히려 문화에 소속될 법한 것이다. 길가메시 신화를 생각해보라. …… 어떤 신화의 기본 구조나 원형적 요소들은 그 신화가 생겨난 민족의 집단적 의식과 결합한 특정한 화술 형식으로 편입된다고 할 수 있다. (pp.40-41)
- 우리에게 민담의 연구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것이다. 왜냐하면 민담은 심혼의 보편적, 인간적 구조를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우리가 “지구 반대 끝에서 온” 사람을 분석할 때 특히 중요하다. 힌두나 오스트레일리아 사람이 상담실로 찾아들어 왔을 때, 분석가가 자기의 신화에만 의존해서는 이들과 아무런 인간적인 소통을 얻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분석가가 인간적 기본 구조를 알고 있다면 그는 이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 …… 민담은 문화적, 민족적 차이 너머에 있기 때문에 쉽게 경계를 넘어 이동할 수 있다. 민담의 언어는 국제적 언어인 듯하다. - 그것은 모든 시대와 문화를 이어준다. (pp.41-42)

제3장. 민담 해석의 실제

- 다음 문제는 민담 해석의 방법이다. 우리 해석의 근거는 융 심리학에 있다.(p.52)
- 꿈 그 자체가 최선의 설명이라는 것, 꿈의 해석은 꿈 자체보다 항상 덜 좋은 것이라고 융이 말한 것과 같은 방식에서 사실이다. 꿈의 상이 내면의 사건의 최선의 표현으로 간주되는 것과 똑같이, 민담과 신화가 그것들이 말하려고 하는 것의 최선의 표현 형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p.52)
- 내가 이미 암시했듯 해석은 오직 연습과 경험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예술, 혹은 기술이다. 그래도 몇 가지 지침이 있다. 꿈의 경우에서와 똑같이 우리는 원형적인 이야기를 여러 면으로 세분한다. 우선 제시부(장소와 시간)부터 시작하다. 민담에서는 행위의 장소와 시간이 항상 분명하다. …… 그와 동시에 우리는 극의 등장인물들에게 집중해야 한다. 나는 시작과 끝의 등장인물들의 수를 셀 것을 추천한다. …… 어떤 어려움이 항상 이야기의 시작에 나타난다. 그렇지 않으면 전혀 이야기가 있을 없기 때문이다. …… “그래, 이것은 민담이야, 그러나 우리는 여기 씩씩한 현실에 있다. 우리는 일상의 생활로 다시 돌아가야만 해. 망연한 상태로 있으면 안 되고 그 이야기로 골머리를 앓으면 안 된다.” 민담 세계에서 다시 현실로 나와야 한다.(p.57)
- 민담의 모든 상징들의 “비교해부학”을 아는 것은 중요하다. 이러한 배경은 여러분이 특수한 것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도울 것이다. 그리고 난 후에야 또한 예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확충은 많은 양의 유사한 것들의 수집을 통한 주제의 확장을 의미한다. 하나의 주제에 대해 유사한 것들을 모은 뒤에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는 방식으로 전체의 이야기를 철저하게 연구할 것이다. (p.59)
- 우리는 민담과 신화가 왜 이야기되어져야 하는가와 똑같은 이유로 민담을 해석한다. 민담이 이야기되면서 항상 그러했듯이 민담은 우리를 활기 있게 하고, 고유한 본능의 토대와 평화적인 관계를 맺게 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심리학적인 해석은 이야기를 설명하는 우리들의 방식이다.(p.61)
- 해석에 있어서 진실된 유일한 판단 기준은 감정이다. 이해석이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충족되고 “이해되는가?” -그리고 나의 꿈이 동의하는가? 내가 어떤 해석을 쓸 경우, 나의 꿈이 동의하는가? 내가 어떤 해석을 쓸 경우, 나의 꿈이 동의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나는 항상 나의 꿈에 주의를 기울인다. 꿈이 그러하면 그때에 나는 그 해석이 나 자신의 본능과 관련하여 나에게 가능한 만큼 괜찮다는 것을 안다.(p.61)

제4장. 한 민담의 해석 “세 개의 깃털”

옛날에 아들 셋을 둔 왕이 있었다. 아들 중두 명은 똑똑하고 영리했지만, 셋째는 말도 별로 없고 순진하기만 해서 ‘바보’ 라고 불렸다. 왕은 늙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느 아들에게 나라를 물려주어야 할지 몰랐다. 그래서 왕은 아들들에게 말했다.

“세상으로 나가서 가장 고운 양탄자를 나에게 가져오는 사람이 내가 죽은 뒤 왕이 될 것이다.”

아들이들이 서로 싸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왕은 성문 앞에서 세 개의 깃털을 공중으로 풀어 올리며 말했다.

“깃털이 날리는 곳으로 각자 가거라.”

깃털 하나는 동쪽으로 다른 하나는 서쪽으로 날아갔지만, 세 번째 깃털은 똑바로 날았음에도 멀리 가지 못하고 바로 땅으로 떨어졌다. 그래서 형제 중 한 명은 오른쪽으로, 다른 형제는 왼쪽으로 갔으며, 그들은 세 번째 깃털이 떨어진 곳에 머물러야 하는 바보 왕자를 비웃었다.

바보 왕자는 주저앉아서 슬퍼하고 있었다. 그러다 그는 갑자기 깃털 옆에 문 뚜껑 하나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그 문을 들어 올려 계단을 발견하고 아래로 내려갔다. 그러자 또 다른 문 앞에 도착하였고, 그 문을 두드리자 안쪽에서 다음과 같이 소리치는 것이 들려왔다.

“자그마한 초록색 애들아.

쫄쫄 다리,

쫄쫄 다리 강아지야,

이리저리 쫄쫄

누가 밖에 있는지 빨리 가서 보아라.”

문이 열리자 안에는 커다랗고 뚱뚱한 두꺼비 한 마리가 앉아 있었고, 그 주위에는 아주 많은 자그마한 두꺼비들이 있었다. 뚱뚱한 두꺼비가 그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묻자 그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운 양탄자를 가졌으면 합니다.” 그러자 커다란 두꺼비가 어린 두꺼비에게 소리쳐 말했다.

“자그마한 초록색 애들아.

쫄쫄 다리,

쫄쫄 다리 강아지야,

이리저리 쪼글쪼글

나에게 커다란 상자를 가져오너라.”

어린 두꺼비가 상자를 가져오고 뚱뚱한 두꺼비가 그 상자를 열어 안에 있는 양탄자를 바보 왕자에게 꺼내 주었는데, 그 양탄자는 지상의 누구도 그렇게 짙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아름답고 고운 양탄자였다. 그는 뚱뚱한 두꺼비에게 고맙다고 하고 땅 위로 올라왔다.

다른 두 형들은 막내동생을 바보로 여겨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고 가져오지도 못할 것이라 믿었다. 그래서 “우리가 뭐하러 힘들게 찾아다녀야 해?” 라고 말하고, 그냥 처음에 만난 목동 부인이 두르고 있던 거친 천을 왕에게 바쳤다. 그때 바보 왕자도 돌아와서 가장 아름다운 양탄자를 바쳤다. 왕이 그것을 보고 놀라며 말하였다.

“법대로 하자면, 왕국은 막내에게 속한다.”

그러나 다른 두 형제는 왕을 귀찮게 하면서,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는 바보가 왕이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새로운 조건을 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래서 왕은 말하였다.

“나에게 가장 아름다운 반지를 가져오는 사람에게 나라를 물려주겠다.”

그리고 왕은 세 형제를 데리고 나가 깃털이 날리는 곳으로 따라가라며 공중에 세 깃털을 날렸다. 두 형들은 동쪽과 서쪽으로 날아가는 깃털이 당첨되었고, 바보 왕자의 깃털은 똑바로 날아서 땅에 있는 문 옆에 떨어졌다. 그래서 그는 다시 뚱뚱한 두꺼비가 있는 곳으로 내려가서 그 두꺼비에게 가장 아름다운반지를 가져가야 된다고 말했다. 그 두꺼비는 바로 그녀의 커다란 상자를 가져오게 하고 그곳에서 반지 하나를 꺼내 주었다. 그 반지는 보석으로 빛나고 너무나 아름다워서 지상의 어떤 금세공사도 만들 수 없는 그런 것이었다.

두 형은 금반지를 찾으려고 하는 바보 왕자를 비웃으며 자신들은 아무런 애를 쓰지 않고 낚은 마차 고리를 부수어 못들을 뽑아내고 그것을 왕에게 바쳤다. 바보 왕자가 금반지를 보여주자 아버지는 또 다시 말했다.

“그에게 이 왕국을 물려준다.”

두 형들은 왕을 계속 괴롭혔고, 결국 왕은 가장 아름다운 신부를 데려오는 자가 왕국을 가지게 된다는 세 번째 조건을 내세웠다. 그리고 다시 깃털 세 개를 공중에 날렸고, 그것들은 지난 번과 똑같이 날아갔다.

바보 왕자는 곧바로 뚱뚱한 두꺼비에게 내려가서 말하였다.

“나는 가장 아름다운 신부를 데려가야만 합니다.”

“아” 두꺼비가 대답하기를, “가장 아름다운 신부! 그것은 지금 당장 손에 들어오진 않지만, 너는 그것을 가지게 될 것이다.” 두꺼비는 그에게 작은 생쥐 여섯 마리가 팽팽하게 매어진 속이 후벼 파진 노란 순무를 주었다. 그러자 바보 왕자는 매우 슬프게 말하

였다.

“이것으로 뭘 시작해볼 수 있겠어요?”

두꺼비는 대답했다.

“나의 작은 두꺼비들 중 딱 한 마리를 그 안에 앉혀라.”

바보 왕자는 둘레에 있던 작은 두꺼비들 중에서 되는 대로 한 마리를 집어 노란 마차 속에 앉혔다. 그 안에 앉자마자 작은 두꺼비는 매우아름다운 소녀로, 순무는 마차로 그리고 여섯 마리의 작은 생쥐들은 말들로 변하였다. 그들은 마차에 올라탔고, 바보 왕자는 그녀에게 키스를 하고 왕에게 데려갔다.

그의 형들도 곧 도착했는데, 그들은 아름다운 신부들을 찾기 위해 전혀 애쓰지 않았고, 단지 처음 만난 농사꾼 아가씨들을 데려왔다. 왕이 그들을 보고 말했다.

“내가 죽은 뒤에 셋째가 나라를 물려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두 형들은 다시 왕의 귀가 먹을 정도로 소리를 질렀다.

“우리는 바보가 왕이 되게 둘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홀 한가운데 걸린 고리를 뛰어서 통과할 수 있는 신부를 가진 자가 우선권을 가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들은 생각했다. “농사꾼 아가씨들은 충분히 강해서 그것을 잘 해낼 것이지만, 연약한 아가씨는 뛰다가 죽을 것이다.”

늙은 왕은 다시 한 번 허락하였다. 그렇게 두 농사꾼 아가씨들은 뛰어서 고리를 빠져나가는 했지만, 너무 둔중하여 떨어지면서 강한팔과 다리들이 둘로 부러졌다. 그 뒤 바보가 데려온 아름다운 아가씨는 노루처럼 가볍게 뛰어 고리를 빠져나갔고, 이제 모든 반대의 소리는 중단되었다. 그래서 바보 왕자는 왕위를 물려받아 오랫동안 현명하게 나라를 다스렸다.(『그림 형제의 민담』¹⁾)

1) 마리-루이제 폰 프란츠, 이부영.이광자 옮김, 『민담의 심리학적 해석』, 한국융연구원, 2018, pp.63-67

체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번역: 이부영

꿈 분석의 실용성^o

꿈 분석의 치료적 실용성이라는 주제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많다. 많은 사람들이 꿈의 분석을 정신신경증(노이로제)의 임상치료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심리적으로 의식과 맞먹을 만큼 중요한 기능을 가진 것으로 꿈을 평가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꿈 분석의 효용성을 논박하고 꿈을 그저 하나의 사소한 정신적 부산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신경증의 원인에서 무의식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견해들은 당연히 무의식의 직접 표현인 꿈이 기본적으로 실용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한다. 마찬가지로 무의식을 부인하거나 무의식이 신경증의 원인으로 대수롭지 않은 것이라 여기는 관점에서는 당연히 꿈의 분석도 불필요한 것으로 설명한다. 자네, 플루르누아, 그 외 많은 사람들의 업적은 논외로 하더라도, 카루스가 무의식 개념을 형성한 지 50년 이상이 지났고, 칸트가 '해아될 수 없는 어두운 관념 영역'을 말한 지 1백 년, 라이프니츠가 무의식

^o 1931년 '정신치료를 위한 일반의사협회Allgemeine Ärztliche Gesellschaft für Psychotherapie' 학술대회(드레스덴)에서 행한 강연, 학회 보고서와 *Wirklichkeit der Seele*, 3. Aufl., 1947, p. 68ff, 『전집』 16에 발표.

적인 마음을 가정한 지 2백 년이 된 서력 1931년에,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무의식의 존재 여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는 것은 한탄할 만하다. 그러나 나는 실제적인 문제만을 다루는 여기에서 무의식에 대한 변호를 늘어놓을 생각은 없다. 물론 여기서 다루는 꿈 분석의 특수한 문제는 무의식의 가설에 의존한다. 무의식의 존재에 관한 가설의 지지가 없다면 꿈은 단지 자연의 유희이며, 조각난 낮의 기억의 잔재가 뜻없이 뒤섞인 것에 불과하다. 꿈이 정말 그런 것이라면 꿈 분석의 실용성에 관한 토론이 받아들여질 근거조차 없을 것이다. 오늘의 이 주제는 오직 무의식의 인정이라는 바탕 위에서만 다룰 수 있다. 왜냐하면 꿈 분석의 예상되는 목적은 무슨 사고 훈련이 아니라 지금까지 무의식에 있던 내용을 발견하고 의식화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신경증 치료나 그 해명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무의식의 가정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에게는 꿈 분석의 실용성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의 가설에 따라 무의식이 원인으로서는 의미가 있고 꿈은 무의식적 심리 활동의 직접 표현이라고 할 때, 꿈의 분석과 해석은 무엇보다 과학적인 입장에서 이론적으로 타당한 작업이다. 이러한 시도가 성공한다면 우리는 심리적 원인의 구조를 과학적으로 통찰할 수 있다고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 나타나는 치료 효과는 논외로 하고 말이다. 그런데 과학적 발견이란 임상가에게는 기껏해야 치료 활동중에 얻는 다행스러운 부산물을 의미할 뿐이다. 그러므로 원인적 배경을 단지 이론적으로 통찰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꿈을 임상적으로 적용하는 충분한 동기가 될 수 없고, 꿈 분석의 실제응용을 목적으로 한 적응증으로는 더더욱 안 된다. 그것은 의사가 이와 같은 해명성 통찰이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약속한다 해도 마찬가지이다. 그 경우에 의사는 꿈의 분석을 적용하는 것을 의사의 의무라고 강조할 것이다. 두루 알려진 대로 프로이트 학파는 통찰과 해명, 즉 무의식적 원인

을 완전히 의식화하는 것이 매우 큰 치료적 의미를 갖고 있다는 입장을 계속 가져왔다.

우선 이와 같은 기대가 사실로 정당화되고 있다는 입장에 서 보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꿈 분석이 절대적이냐 상대적이냐, 즉 다른 방법과 연결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냐, 또는 무의식적 원인을 찾아내는 데 그것이 전혀 적합하지 않은 것이냐 하는 물음만이 남는다. 이런 물음에 대한 프로이트의 답은 누구나 쉽게 짐작할 수 있다고 믿는다. 나는 그 해답을 다음의 범위 안에서 증명할 수 있다. 꿈 가운데서 최초의 꿈(분석을 시작하기로 한 뒤 처음 꾸는 꿈—역주), 즉 치료를 바로 시작할 때의 꿈은 중요한 원인적 요소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경우가 흔히 있다. 다음에 든 예는 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지도층에 있는 한 남자가 나에게 상담을 청했다. 그는 불안 초조, 불안정한 마음, 때로는 구토까지 일으키는 어지럼증, 머리가 멍하고 숨이 막히는 등의 증상으로 괴로워했다. 그 증세는 흔히 고산병(高山病)과 혼동할 정도로 비슷했다. 환자는 대단히 성공한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대단한 근면성과 뛰어난 재능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 마침내 지도자 격의 중요한 위치에 다다랐는데, 그 자리는 사회적으로 더 높이 올라갈 전망이 아주 큰 자리였다. 사실 그는 도약의 발판에 도달했으며, 만약 그에게 갑자기 신경증이 끼여 들지만 않았더라면 더 높이 비약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환자는 이 대목에서 다음과 같은 틀에 박힌 언어로 시작되는, 너무도 잘 알려진 사설을 내뱉었다.

‘왜 하필 지금 ...’ 등등.

고산병의 증후는 이 환자의 특이한 상황을 극적으로 묘사하는 데 특히 적절한 것 같았다. 환자는 상담 시간에 그전 밤에 꾸는 두 개의 꿈에 대해 말해주었다. 첫번째 꿈은 다음과 같다.

나는 다시금 내가 태어난 작은 마을에 있다. 길거리에는 함께 학교를 다닌 시골 청년 몇 사람이 모여 서 있었다. 나는 그들을 모르는 것처럼 행동한다. 그러곤 그들 옆을 지나간다. 이때 그들 중 한 사람이 나를 빗대어 말하는 소리를 듣는다. “저 애도 우리 동네에 자주 오지 않아.”

이 꿈에서 우리는 그의 경력의 비천한 출발점이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암시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이해하기 위해 해석상의 곡예를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꿈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 “너는 내가 얼마나 깊은 밑바닥에서 시작했는지 잊고 있어”라고.

두번째 꿈은 다음과 같다.

나는 무척 서두르고 있다. 여행을 떠나려 하기 때문이다. 나는 짐을 꾸리려 하는데 아무것도 찾지 못한다. 시간은 가고 기차는 곧 떠날 것이다. 마침내 나는 내 일용품 일체들 얻을 수 있게 되어 길거리를 바쁘게 가는데, 중요한 서류가 든 가방을 잊은 것을 알아차리고 단숨에 되돌아가 가방을 찾아 기차역으로 달려간다. 그런데 아무리 뛰어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드디어 마지막 힘을 다해 나는 역의 플랫폼으로 뛰어든다. 기차가 어떻게 플랫폼 밖으로 달려가는지 보기 위해서다. 그런데 기차는 이상하게도 S자 형태의 곡선으로 달리고 있고 아주 길다. 나는 생각했다. 만약 기관사가 직선 궤도에 도달하자마자 부주의하게 전조 증기압을 준다면 아직 곡선 궤도에 있는 기차의 뒤쪽 차량들은 속도 때문에 궤도에서 내동댕이쳐질 것이라고. — 실제로 기관사가 전 증기압을 넣었다. 나는 소리를 지르고자 시도한다. 뒤편의 차량들이 무섭게 흔들리더니 정말 궤도에서 내던져졌다. 그것은 끔찍한 재해였다. 나는 놀라서 잤다.

여기서는 묘사한 꿈을 이해하는 데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된다.

꿈은 먼저 더 앞으로 가고자 하는 신경 과민한 성급함을 묘사하고 있다. 앞자리의 기관사가 무분별하게 앞으로 달리기 때문에 뒤편에서는 신경증, 즉 동요와 탈선이 생기는 것이다.

환자는 분명 현재 자신의 인생에서 최고점에 도달했다. 미천한 출생 신분과 오랜 상승의 노고로 그는 지쳐 있다. 그런데 그의 명예욕이 그를 계속 더 높은 곳으로, 그가 숨쉬기에는 너무나 공기가 희박하고 그가 적응하지 못할 곳으로 내몰았다. 그래서 신경증이 경고하면서 그에게 다다른 것이다.

외적인 이유로 나는 이 환자를 계속 치료할 수 없었다. 내 견해 또한 그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 결과 이 꿈에서 그려진 운명이 자기 궤도를 밟아 나갔다. 그는 야망에 차서 자기에게 온 기회를 남김없이 이용하려 들었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그의 직업에서 완전히 탈선하여 예상한 재앙이 현실로 나타났다.

의식 수준에서 얻은 그의 과거력으로 그저 추측한 것, 즉 고산병이 ‘더 이상 계속 올라갈 수 없음’의 상징적 표현이라는 것이 꿈을 통해서 사실로 확인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꿈의 실용성을 위해 더없이 중요한 사실에 마주친다. 꿈은 꿈을 꾸 사람의 내적인 상황을 묘사하는데, 의식은 그 진실성과 현실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거나 또는 그저 마지못해 인정한다는 것이다. 그는 의식에서 왜 앞으로 계속 가서는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조금도 보지 못한다. 오히려 그는 야망에 실려 더 높이 가고자 하며, 그 자신의 무능을 부인한다. 그리고는 그의 생애의 뒷날 사건을 통해 그 무능함이 너무도 분명히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다.

의식의 영역에서 우리는 언제나 그런 경우에 확신을 갖기 어렵다. 그의 과거력은 이렇게도 저렇게도 평가될 수 있다. 마침내는 한낱 병사도 원수가 되어 원수봉元帥棒을 배낭에 꽂을 수 있으며 가난한 부모의 말

은 아들들이 최고의 성공을 거둘 수 있는 법이다. 이 환자의 경우에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에 있는가? 내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다. 내 추측이 그의 추측보다 더 나아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 꿈이 등장한다. 꿈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하나의 표명으로서 의식의 영향에서 배제된 무의식적인 정신 과정으로 나타나 꿈꾼 사람의 내적 진실과 현실성을 있는 그대로 묘사한다. 내가 그렇게 추측하기 때문도 아니고, 그가 그런 현실을 갖고 싶어해서도 아니며, 다만 그것이 있는 그대로 묘사한다. 그래서 나는 꿈을 일차적으로 생리적 표명처럼 관찰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소변에 당糖이 나오면 당이 소변에 있는 것이지 단백질이나 우로빌린이나 그 밖의 내가 기대하는 것에 더 잘 해당되는 다른 어떤 것이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나는 꿈을 진단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사실이라고 본다.

앞에 든 짝막한 꿈의 사례는, 꿈이 언제나 그렇듯 우리가 기대하고 요구한 것, 즉 원인을 찾는 것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다. 그 꿈은 우리에게 신경증의 원인뿐 아니라 예후豫後도 주었고, 그 이상의 것도 주었다. 우리는 심지어 어디가 직접 치료되어야 하는지를 그 꿈을 통해 알 수 있다. 우리는 환자가 전 증기압을 주는 것을 막아야 했다. 그것은 환자 자신이 꿈속에서 한 말이 아니던가.

우리는 우선 이와 같은 시사로 만족하고, 우리가 앞서 제기했던 물음—꿈이 노이로제의 원인을 해명하는지에 관한 고려로 돌아가기로 하자.

위에 든 환자의 꿈의 예는 이와 관련하여 긍정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투명한 내용의 꿈인데도 어떤 원인적인 요인들의 흔적조차 인식할 수 없는 수많은 최초의 꿈을 나는 아주 쉽게 인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세한 분석과 해석을 요하는 꿈은 잠정적으로 논외로 하고자 한다.

잘 알려진 대로 신경증의 진정한 원인이 치료의 맨 마지막에 가서야 비로소 분명해지는 경우가 있고, 또한 그 원인이 대수롭지 않은 신경증도 있다. 이런 사실은 나로 하여금 우리가 출발한 가설, 즉 원인이 되는 요인의 의식화는 치료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가정으로 되돌아가게 만든다. 이런 가정 속에는 아직 외상 이론이 듬뿍 숨어 있다. 많은 신경증이 외상인성外傷因性이라는 사실을 결코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신경증이 어린 시절의 결정적인 외상 체험에서 생긴다는 주장에 대해 나는 반대한다. 이러한 견해는 의사가 그의 주의를 인과적인 과거로 향하도록 그를 묶어놓는다. 그런 자세로는 언제나 '무슨 까닭에 Warum' 만을 묻고 그만큼 본질적인 '무슨 목적으로 Wozu' 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는데, 이것은 환자에게 큰 손해를 끼친다. 환자는 의사의 그런 과거 지향적 관심 때문에 직접적으로 중요한 것들을 철저하게 소홀히 하면서 때로는 수년 동안 생각할 수 없는 어린 시절의 체험을 탐색하도록 강요받는다.

단순한 인과적 입장은 너무 편협하다. 그것은 꿈의 본질에도, 신경증의 본질에도 합당하지 않다. 그러므로 꿈을 오직 원인이 되는 요인을 발견할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문제 제기는 편견에 찬 것이며, 꿈의 보다 큰 부분을 간과하는 것이다.

바로 우리 환자의 예는 꿈의 원인을 분명히 지적하면서도 그 밖에 꿈이 예후나 예상, 게다가 치료에서의 힌트마저 주고 있다는 사실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부가하여 원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전혀 다른 문제, 예컨대 의사에 대한 태도 같은 것을 다루는 수많은 첫 꿈이 있다. 이에 대한 예로 한 여자 환자의 세 개의 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세 명의 서로 다른 분석가에 의해 이루어진, 치료 초기에 꾸는 꿈이다. 첫 꿈은 다음과 같다.

나는 국경을 넘어가야 했다. 그런데 어디에서도 경계를 찾을 수 없다. 아무도 내게 어디에 국경이 있는지 말하지 못한다.

이 치료는 얼마 뒤에 성과 없이 중단되었다. 두번째 꿈은 다음과 같다.

나는 국경을 넘어가야 했다. 캄캄한 밤이고 나는 세관을 찾을 수 없다. 오랫동안 찾아다닌 끝에 나는 아득히 먼 곳에서 반짝이는 작은 불빛을 보고 그곳이 국경이라고 추측한다. 그러나 그곳에 다다르기 위해 계곡을 넘고 컴컴한 숲을 지나야 하는데, 그 속에서 방향을 잃는다. 이때 나는 누군가가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그 사람은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나에게 매달린다. 나는 놀라서 쾅다.

이 치료는 수주 뒤에 중단되었다. 분석가와 피분석가 사이의 무의식적 동체성이 생겨서 완전한 방향 상실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세번째 꿈은 나의 치료시에 생긴 것이다.

나는 어떤 경계선을 넘어야 한다. 즉 나는 그것을 이미 넘어갔고, 지금 스위스의 세관에 있다. 나는 오직 손가방 한 개를 가지고 있을 뿐, 아무것도 통관해야 할 게 없다고 믿는다. 그런데 세관원은 내 손가방을 움켜쥐고 놀랍게도 온전한 두 개의 침구를 꺼낸다.

이 여자 환자는 나의 치료중 결혼했는데, 처음에는 이에 대해 강하게 저항했다. 그녀의 신경증적 저항의 원인은 수개월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분명해졌는데, 이 꿈에서는 한마디도 없다. 이상의 꿈은 예외 없이 예측을 나타내며, 해당 의사에게 닥칠 예상된 어려움과 관계된다. 다른

많은 비슷한 꿈을 대신해서 제시된 이 예들은 꿈이 아주 흔하게 예측이라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고, 순전히 인과적인 관찰만으로는 꿈의 고유한 의미를 전적으로 상실하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 여러 꿈은 분석 상황에 관한 분명한 정보를 주고 있는데, 분석 상황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은 치료에서 매우 중요하다. 첫번째 의사는 상황을 옳게 인식하여 두번째 의사에게 환자를 넘겼다. 두번째 의사에게서는 환자 자신이 꿈에서 자기 나름의 결론을 내리고 자유의지로 치료를 그만두었다. 나의 꿈 해석은 그녀를 실망시켰지만, 꿈에서 경계선 통과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한 사실은 온갖 어려움을 견디면서도 그녀에게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다.

흔히 최초의 꿈은 놀랄 만큼 투명하고 분명한 형태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분석이 진행되면서 꿈은 곧 그 분명한 성격을 상실한다. 그런데도 예외적으로 꿈이 분명한 성격을 갖추고 있다면 분석이 피분석자의 인격의 중요한 부분에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보아도 틀림없다. 대개는 치료를 시작한 뒤에 꿈이 곧 불투명해지고 더 불명확해져서 그 해석을 아주 어렵게 만든다. 이렇게 어려워지는 또 하나의 이유는 경우에 따라서 의사가 그 상황을 실제로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기도 하다. 꿈이 불투명하게 된다는 것은 순전히 (의사의 입장에서 볼 때) 주관적 확정이라는 사실이 이것을 증명한다. 이해하는 사람에게는 불분명한 것이 없다. 오직 이해 못 하는 사람에게만 사물이 불투명하고 혼란스럽게 보인다. 꿈은 그 자체로는 물론 분명하다. 바꾸어 말하면 꿈은 순간적인 조건 아래 있어야 하는 그대로이다. 만약 우리가 치료의 후기에, 심지어 수년 뒤에 그 꿈을 되돌아보면 자기가 그 당시에 얼마나 눈뜬 장님이었나를 생각하고 머리를 쥐어뜯는 경우도 많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분석을 계속하면서 뜻이 분명히 보이는 최초의 꿈과 비교해서 눈에 띄게 불분명한 꿈을 만날 때 의사는

그것을 혼란된 꿈, 또는 환자의 고의적인 저항이라고 나무라지 말아야 하며, 그것을 이제 막 시작된 자신의 물이해의 징조로 파악해야 한다. 환자를 혼란스럽다고 말하는 정신과 의사가 그것을 자기의 무의식의 투사로 인식하고 자기 자신이 혼란에 빠졌다고 말해야 하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는 환자의 특이한 태도 때문에 이해력이 혼란스러워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자신의 물이해를 제때에 통찰하는 것은 치료에서 엄청나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환자에게는 그가 항상 이해받는다는 것 이상으로 해로운 것은 없기 때문이다. 환자는 그렇지 않아도 의사의 신비한 능력에 의지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의사가 그의 직업적 허영심에 빠지도록 함정을 만든다. 심지어 환자는 의사의 확신 있는, '깊은' 이해에 글자 그대로 이주移住하여 모든 현실 감각을 잃어버리고 집요한 전이에 빠지게 되며 치료 성과를 지연시킨다.

요해了解Verstehen란 알다시피 매우 주관적인 과정이다. 의사는 요해했지만 환자는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처럼 그것은 아주 일방적일 수 있다. 이 경우에 의사는 환자를 설득하는 것을 자기의 의무로 알고 있다. 그래서 환자가 설득되지 않으면 의사는 저항한다고 비난한다. 이 경우, 즉 이해가 일방적인 경우에 나는 주저하지 않고 나의 물이해를 말할 것이다. 왜냐하면 결국 의사가 요해하느냐 않느냐 하는 것은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환자가 요해하느냐에 달렸다. 그러므로 요해는 동의同意라야 한다. 즉, 함께 심사숙고한 것의 열매이다. 일방적인 이해의 위험성은 의사가 선입견으로 꿈을 판단하는데 있다. 비록 그 판단이 정통적인 학설과 일치하고 심지어 근본적으로 옳은 것이었다 하더라도 말이다. 그런 판단은 환자의 자유로운 동의에 미치지 못하는데 실제로는 옳지 않은 판단이다. 그것이 옳지 않은 이유는, 그런 판단이 환자의 발전을 미리 예정함으로써 환자를 마비시키기 때문이기도 하다. 환자는 설교를 통해 진실을 배워서 안 된다—그

것은 오직 환자의 머리에 호소할 뿐이다—환자는 오히려 그 진실로 향해 성장해가야 한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그의 마음에 도달하며, 우리의 호소는 더욱 깊이 그를 사로잡고, 더욱 강하게 작용한다. 의사의 일방적인 해석이 단지 어떤 이론이나 그 밖의 선입견과 일치한다면, 때때로 생기는 환자의 설득 또는 치유 성과는 주로 암시에 근거하고 있다. 우리는 이에 대해 결코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된다. 암시 작용 자체는 비난할 만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너무도 잘 알려진 한계를 가지고 있고 성격의 자립에 부작용을 미치고 있어, 장기적으로 보면 차라리 그것 없이 치료하고 싶어진다. 분석적 치료를 하는 사람은 그 치료가 의식화의 의미와 가치를 함축하고 있다고 믿는다. 의식화으로써 지금까지 무의식적이던 인격 부분이 의식적인 선택과 비판 아래 놓이게 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로써 환자는 문제에 대면해서 의식적 판단과 의식적 결단을 하도록 자극받는다. 이것은 윤리적 기능을 직접 자극하는 것보다 결코 적은 일이 아니며, 이로써 또한 인격 전체가 치료 계획의 부름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분석적 치료를 한다는 것은 인격의 성숙이라는 면에서 암시보다도 현저히 높은 것이다. 암시는 일종의 마술적 수단으로, 알 수 없는 어둠 속에서 작용하고 결코 인격에 대한 윤리적 요청을 제기한 일이 없다. 암시는 항상 속임수가 있고 단지 보조수단이므로, 분석적 치료의 원리와 일치될 수 없으므로 가능하면 피해야 할 것이다. 물론 암시는 의사가 그 암시 가능성을 의식할 때라야만 피할 수 있다. 무의식적으로는 아직도 너무 많은 암시작용이 남아 있는 것이다.

의식적인 암시를 피하고자 하는 사람은 환자와의 동의에 도달하는 방식이 발견되기까지 꿈의 해석이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그 내용이 불투명하여 의사나 환자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꿈을 치료할 때 이 기본 규칙을 존중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의사는 그런 꿈을 항상 새로운 사실, 아직 알려지지 않은 성질의 여러 조건들에 관한 정보라고 보아야 한다. 그것은 의사나 환자가 배울 것이 많은 정보이다. 그가 꿈을 해석할 때마다 이론적인 전제를 포기하고 모든 개별적인 경우에서 전혀 새로운 꿈 이론을 발견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개척해야 할 끝없는 장場이 열려 있기 때문이다. 꿈이 단지 억압된 욕구 충족이라는 것은 이미 아득히 시대에 뒤진 관점이다. 물론 충족된 욕구나 근심이 나타나는 꿈도 있다. 그러나 그 밖의 무엇인들 없겠는가? 꿈에는 냉엄한 진실, 철학적 문장, 착각, 거친 환상, 추억, 계획, 예측, 심지어 텔레파시적 환상, 비합리적 체험들, 그리고 그 밖에 또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만이 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한 가지 사실이 있다. 우리 삶의 거의 절반이 무의식적인 상태에서 영위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무의식의 특수한 의식적 표명은 꿈이다. 심혼이 낮의 측면, 즉 의식을 가지듯, 또한 밤의 측면, 즉 무의식의 정신적 기능 활동 또한 가지고 있으며 일련의 꿈 같은 환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의식에도 욕구와 근심만 있는 게 아니라 끝없이 많은 다른 것이 있듯이, 꿈의 심혼이 그와 비슷한, 아니 심지어는 그 내용과 삶의 가능성에서 의식보다도 훨씬 더 큰 보배를 마련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의식의 본질적인 성질은 집중, 제약, 그리고 배타성에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황에서 볼 때, 꿈의 의미를 미리부터 독단적으로 제약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결코 부당한 말이 아니라 오히려 권장해야 할 말이다. 꿈을 꾸는 사람 가운데는 의사의 그때그때의 기술적인 또는 이론적인 온어를 다음과 같은 옛날 글처럼 그들의 꿈속에서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개는 개밥을 꿈꾸고 어부는 물고기를 꿈꾼다. 그렇다고 어부가 꿈꾸는 물고기가 언제나 물고기에 불과한 것이라는 뜻은 아니다. 잘못 사용되지 않을 언어란 없다. 그런 오용을 통

해서 우리가 어떻게 속고 있는지를 상상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무의식은 심지어 의사를 그 자신의 이론에 질식할 정도로 휩싸는 경향조차 있다. 그러므로 나는 꿈을 분석할 때 가능한 한 이론에서 비껴서서 본다. 물론 완전히 이론을 떠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사물을 분명히 파악할 수 있으려면 언제나 약간의 이론은 필요하기 때문이다. 꿈이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이론적 기대이다. 이런 기대가 항상 정확하게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 의사나 환자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꿈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나는 꿈을 다루어 나갈 수 있는 용기를 갖기 위해 그러한 가정을 세운다. 또 하나의 이론은 꿈이 의식적 인식에 어떤 중요한 것을 보태준다는 것, 그렇지 못한 꿈은 불충분하게 해석되어 있는 경우라는 것이다. 내가 왜 꿈을 분석하는지 그 이유를 나 자신에게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러한 가설을 세워야 했다. 다른 가설들, 예컨대 꿈의 기능과 구조에 관한 가설은 단지 수작업상의 규칙이고 끊임없이 수정될 수 있는 것들이다. 꿈의 분석에서 우리는 속임수에 가득찬 땅 위를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한 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 여기서 가장 확실한 것은 불확실성이다. 꿈 해석자에게 그가 너무 빨리 해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무슨 일을 해도 그저 “이해하려고만 하지 말라!”고 호소하고 싶을 정도이다.

불투명한 꿈에서 문제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해하거나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깊게 꿈의 맥락을 작성하는 일이다. 맥락이라 해서 꿈의 상들에서 출발하는 끝없는 ‘자유연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꿈의 상을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군집되어 있고 연상의 고리들을 주의깊게 의식적으로 조명해내는 것을 말한다. 이런 작업을 위해서는 많은 환자가 먼저 훈련을 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의사와 마찬가지로 환자도 즉시 이해하고 바로 해석하고자 하는 참을 수 없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런 경향은 사람들이 설익은 독서라든가 약간 빗나간 분석

등 왜곡된 교육을 받았을 때 볼 수 있다. 그들은 먼저 이론적으로 연상을 한다. 즉, 이해하는 동시에 해석하면서 연상하고는 가능한 한 그 속에 머물고자 한다. 그들은 의사처럼 즉시 꿈의 배후에 도달하고자 한다. 꿈은 하나의 앞면일 뿐 진정한 의미를 감추고 있다는 잘못된 가정을 한다. 그러나 이른바 앞면은 대부분의 가옥에서는 기만 또는 속임수의 왜곡된 상이 결코 아니다. 그것은 그 집의 내용에 해당하며, 심지어 그 내면을 곧바로 보여주는 경우도 많다. 마찬가지로 현시된 꿈의 상도 꿈 그 자체이며 온전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내가 소변에서 당을 발견했으면 그것은 당이지 단백질이 아니다. 프로이트가 '꿈의 앞면'이라고 명명한 것은 꿈의 불투명성을 말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꿈에 대한 치료자의 물이해의 단순한 투사이다. 즉, 사람들은 꿈에 대해 어떠한 통찰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앞면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차라리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옳을 것이다. 문제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문장과 같은 것인데, 그것은 앞면이 아니고 우리가 단지 해독할 수 없는 것이라고 —, 그러면 우리는 그 뒤에 무엇이 있는지 해석할 필요가 없으며, 그 꿈을 해독하는 방법을 배워야 할 것이다.

그런 작업은 이미 말한 대로 맥락을 만들어내는 것을 통해서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다. 소위 자유연상만으로 목표에 도달할 수는 없다. 그것으로 내가 히티트 족(고대 소아시아의 인도 게르만계 문화 민족 — 역주)의 비문을 해독할 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물론 자유연상을 통해 나는 나의 모든 콤플렉스를 만날 수 있다. 그러나 그 목적 때문에 꿈이 필요하지는 않다. 나는 경고판이나 신문에 있는 한 문장을 가지고 자유연상을 잘할 수 있다. 자유연상으로 콤플렉스들이 떠오를 수 있다. 그러나 꿈의 의미가 떠오르는 것은 예외에 속한다. 꿈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하여 나는 가능한 한 꿈의 상像에 가까이 있어야 한다. 누군가가 전나무로 만든 상像을 꿈에서 보았다면 그가 그것에 대해 그의 책상을 연

상한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그의 책상이 전나무로 되어 있지 않다는 단순한 이유만으로도 불충분하다. 그러나 꿈은 분명히 전나무로 된 상을 말하고 있다. 만약 꿈을 꾸 사람에게 더 이상 연상되는 것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이 연상의 막힘은 객관적인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꿈의 이미지 근처에 특히 우리에게 의심스러운 생각을 하게 만드는 알 수 없는 비밀이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통 같으면 전나무 상에 수십 개의 연상이 있을 텐데 아무것도 없다면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런 경우에 나는 다시 꿈의 이미지로 돌아가 환자에게 보통 이렇게 말하곤 한다. "한번 가정해보시오. 내가 '전나무 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도대체 모른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대상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그 대상과 그 자연사自然史를 기술해주시요."

이런 식으로 꿈의 상의 총맥락을 상당한 정도로 확인하는 데 성공하게 된다. 꿈에 걸쳐 이런 작업을 하면 해석 시도를 시작해볼 수 있다.

모든 해석은 하나의 가설이다. 미지의 문헌을 읽는 시도일 뿐이다. 하나의 불투명한 꿈을 상당히 확실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경우란 드물다. 그래서 나는 개별적인 꿈의 해석에 큰 무게를 두지 않는다. 비교적 확실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은 꿈의 계열에서 가능하다. 뒤따르는 꿈들이 앞서간 꿈의 해석상의 잘못을 수정해주기 때문이다. 또한 꿈의 계열에서는 그 밑바닥에 놓인 내용과 모티프가 훨씬 잘 인식된다. 그러므로 나는 환자들에게 그들의 꿈과 해석을 주의깊게 적어놓을 것을 권한다. 또한 나는 환자들이 그들의 꿈을 앞에서 시사한 식으로 준비하도록 지도한다. 즉, 꿈을 맥락 자료와 함께 적어서 분석 시간에 가져오도록 한다. 분석의 후기 단계에서는 해석도 적으라고 한다. 이렇게 환자는 의사 없이도 자기의 무의식을 바르게 다룰 줄 알게 된다.

꿈이 다만 원인적으로 중요한 순간들에 관한 정보원情報源이라면 사

람들은 꿈에 관한 전체 작업을 의사 손에 맡겨두어도 될 것이다. 혹은 의사는 온갖 유용한 힌트나 심리적 통찰을 거기서 얻기 위해서 꿈을 이용할 것이다. 그러면 나의 방법은 틀림없이 쓸모없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나의 예가 보여준 대로 의사에게 꿈이 진단상의 기술로서 이바지할 만한 것 이상을 포함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꿈의 분석에는 매우 특수한 주의력이 부여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꿈의 분석은 심지어 직접적인 생명의 위험과 관계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런 종류의 많은 사례 가운데서 나에게 특히 깊은 인상을 남긴 경우가 있었다. 그것은 동료 의사의 경우였는데, 나보다 조금 나이가 적었고 가끔 만나면 꿈 해몽을 가지고 놀리기를 잘하던 사람이었다. 나는 그를 그렇게 또 거리에서 만났다. 그는 나를 불러세웠다. “그래, 어떻게 지내? 아직도 꿈을 해석하나? 그런데 글썄 내가 요새 바보 같은 꿈을 꾸었지. 이것도 뜻이 있는가?” 그가 꾸은 꿈은 다음과 같았다.

나는 높은 산 위로 만년설이 덮인 가파른 경사를 올라가고 있다. 그것은 점점 더 높아진다. 날씨가 기막히게 좋다. 높이 올라갈수록 기분이 점점 더 좋아진다. 그저 영원히 그렇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다. 정상에 올라갔을 때 행복감과 고양된 기분이 너무도 커서 나는 더 높이 우주로 올라갈 수 있다는 느낌까지 든다. 나는 이제는 이것을 할 수 있다고 느끼고 공중으로 올라갔다. 나는 충만한 황홀감 속에서 깨어난다.

나는 그에게 대답했다. “친애하는 후배, 그대가 등산을 마다하지 않는다는 점을 내가 알기에 정말 간절히 부탁하네. 이제부터는 혼자 등산가지 말게. 산에 가려면 두 사람의 안내자와 함께 가게. 그리고 그 사람들 말에 절대 순종해야 하네.” 그는 웃었다. “어려할까?” 그리고는 헤어졌다. 그 뒤로 나는 그를 다시는 보지 못했다. 두 달 후 첫번째 일격

이 가해졌다. 그는 혼자서 산에 오르다 눈사태에 뒤덮였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우연히 거기에 있던 순찰대에 의해 구출되었다. 3개월 뒤에 종말이 왔다. 지도자 없이 자기보다 젊은 친구와 함께 간 등산에서 그는 — 밑에서 우연히 다른 지도자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 하산시에 암벽 위로, 글자 그대로 공중으로 날아 훨씬 아래에서 기다리던 친구의 머리 위로 떨어져서 두 사람 다 밑으로 굴러 떨어진 것이다. 그것은 어느 모로 보나 엑스터시忘我境Ecstasy이었다.

꿈에 관련된 어떤 회의와 비판도, 지금껏 나에게 꿈이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하도록 만든 적은 한 번도 없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의미하게 보인다면 그것은 다만 우리가 무의미한 것이며, 우리가 그 수수께끼 같은 밤에 오는 통신을 제대로 해독할 만한 재치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 그럴수록 의학심리학은 꿈에 대한 체계적인 작업을 통해 그 뜻을 명확하게 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최소한 우리의 정신 생활의 반은 밤 쪽에서 이루어지는데, 의식이 밤으로 이행하여 작용하듯이 그만큼 무의식 또한 낮의 생활 속으로 솟아올라 이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아무도 의식된 체험의 중요성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무의식적 현상의 의미는 의심해야 하는가? 그것 또한 우리의 삶이다. 흔히 낮의 생활보다 더 많은 것, 더 위험한 것, 또는 더 도움을 주는 것이다.

꿈이 우리에게 내면에 숨겨진 생활에 관해 알려주며 낮의 생활에서는 다만 신경증적 증상을 의미하던 환자의 여러 인격 구성 요소들을 드러내보이기 때문에, 환자는 의식 쪽에서만 치료할 수 없고 무의식을 다룰 필요가 있다. 그러자면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무의식의 내용을 충분히 의식에 동화시키는 것 말고는 다른 것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이 경우 동화同化라는 말은 의식과 무의식의 상호 삼투滲透를 말하며, 일방적으로 평가, 재해석, 변형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일반적

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또한 실시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무의식의 의미와 가치에 관해 사람들은 아주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다. 알다시피 프로이트 식의 견해는 무의식을 철두철미하게 부정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다. 그 학파의 생각에 따르면 원시인이 괴물이나 다름없듯이, 무서운 원초적 인간에 관한 유모乳母 민담은 유아적·도착적·범죄적 무의식설과 함께 무의식 고유의 존재 방식인 자연스러운 것을 위험한 괴물로 비추어지게 하였다. 마치 모든 좋은 것, 이성적인 것, 모든 삶의 가치 그리고 모든 아름다운 것은 의식 속에 옮겨간 듯이 말이다! 엄청난 참화를 빚은 세계대전이 아직도 우리의 눈을 뜨게 하지 못했던 말인가?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우리의 의식이 자연물自然物인 무의식보다도 더 악마적이며 도착되어 있다는 것을 정말 보지 못하고 있단 말인가?

최근에 나는 내 무의식의 동화 학설이 문화를 파괴하며 인간의 높은 가치를 원시성에게 떠맡겼다는 비난을 받았다. 그런 생각은 무의식이 괴물이라는 잘못된 전제에 근거하고 있다. 프로이트의 학설은 무의식의 상상된 발톱으로부터 탈출할 목적으로 승화의 개념을 만들었다. 진정으로 존재하는 것은 연금술적으로 승화할 수 없다. 승화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잘못된 해석의 결과로 보이는,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

무의식은 귀신 같은 괴물이 아니고 도덕적·미적 그리고 지적으로 무관심한 자연적 존재인데, 그것이 위험한 것은 우리의 의식의 태도가 무의식에 대해 절망적일 정도로 잘못되어 있을 때뿐이다. 우리가 억압하는 정도에 따라 무의식의 위험성은 증가한다. 그러나 환자가 그의 무의식적이던 내용을 동화하기 시작하는 순간 무의식의 위험성도 감소한다. 인격의 해리, 낮과 밤의 불안한 분리는 지속적인 동화로 정지한다. 나의 비판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의식에 의해 의식이 지배받는 것인데, 이것은 무의식이 억압이나 잘못된 해석이나 평가 때문에 의식과 공존하는 것이 저지될 때 나타난다.

무의식의 본체에 관련된 기본적인 착오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무의식에는 한 가지 뜻만 있다고 가정하며, 또한 그것이 변함없는 징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데 있다. 내가 보기에 이런 견해는 너무 단순하다. 자가 조정 체계로서의 심혼은 신체의 삶처럼 평형을 갖추고 있다. 모든 과도한 과정이 발생하면 즉각 또는 불수의적으로 보상補償이 일어난다. 그것 없이는 정상적인 대사도, 정상적인 정신도 없다. 이런 의미에서 보상확설은 정신적 행태의 기본 법칙이라고 할 수 있다. 이곳에서 너무 적은 것은 저곳에서 너무 많은 것을 생기게 한다. 이와 같이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관계도 보상적인 것이다. 이것은 꿈 해석의 가장 잘 증명된 구체적 법칙의 하나이다. 언제나 우리는 실제로 꿈을 해석할 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다음 물음을 던진다. 어떤 의식적 태도가 꿈에 의해서 보상되고 있는가?

보상은 보통 환상적인 욕구충족과 같은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실성이다. 사람이 그 사실성을 억압하면 할수록 더욱 현실화되는 것이다. 목마름은 억압함으로써 멈춰지지 않는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꿈의 내용은 먼저 사실성으로 중요시해야 하고, 공동 결정 요소로서 의식적 태도 속에 수용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무의식의 보상을 요구한 바로 저 빼돌려진 의식적 태도에 집착한다. 어떻게 자기 자신에 대해 바른 판단을 하며 균형 있는 생활을 영위할지를 간파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바로 나의 비판자들이 두려워하는 대로, 누군가가 무의식의 내용을 의식의 자리에 놓으려고 생각했다면 그는 당연히 의식을 억압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예전에 의식이던 내용이 무의식에서 보상적 역할을 이어받게 될 것이다. 이로써 무의식이 그 모습을 전적으로 바꾸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때까지 안에 있던 예전의 자세와는 현저히 대립되는 불안스러우면서 이성적인 것이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무의식이 이런 식

으로 작동하리라고 믿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작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은 무의식의 가장 고유한 기능이다. 그러므로 모든 꿈은 정보 및 조정 기관이며 그래서 인격을 구축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보조 수단이 되는 것이다.

오만하거나 비겁한 의식이 그곳에 몰래 어떤 폭발물을 쌓아놓지 않는 한 무의식에는 아무런 폭발물이 없다. 그럴수록 꿈을 경솔하게 스쳐 지나가지 말아야 할 이유가 뚜렷해진다.

이상의 모든 이유 때문에 나는 모든 꿈의 해석 시도에서 다음과 같은 물음을 던지는 것을 규칙으로 삼고 있다. 어떤 의식적 태도가 꿈을 통해서 보상되고 있는가? 이렇게 하여 나는 꿈을 의식 상황과의 밀접한 관계에 놓는다. 의식 상황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꿈의 개략적인 해석조차 할 수 없다고까지 주장해야겠다. 오직 의식 상황의 지식에서부터 무의식적 내용에 가감 중 어떤 징후를 부여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꿈은 낮의 생활과 그 성격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고립된 사건이 결코 아니다. 우리에게 꿈이 그렇게 보인다면 그것은 우리의 몰이해이며 주관적 착각에 불과하다. 실제 의식과 꿈 사이에는 가장 엄격한 인과성이 있고, 최고로 섬세하게 평형을 이루는 상호 관계가 있다.

나는 이 중요한 무의식적 내용의 평가 과정을 예클 들어 설명하고자 한다.

내 아버지가 새 차를 타고 집에서 출발한다. 그는 아주 서투르게 달린다. 나는 그의 바보 같은 행동에 화를 낸다. 나의 아버지는 이제 이리저리 차를 몰아 아주 위험한 사태를 빚는다. 마침내 그는 어느 담장으로 달려들어 차가 심하게 망가졌다. 나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그를 부른다. 그리고는 정신차리라고 말한다. 그러자 아버지가 웃는다. 나는 그가 완전히 취해 있는 것을 본다.

이 꿈을 뒷받침할 만한 이런 종류의 사건은 현실에서는 없다. 꿈꾼 사람은 그의 아버지가 아무리 술에 취해도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 그 자신도 카레이서로서 매우 조심성 있고, 특히 운전할 때는 술을 극도로 절제한다. 그는 서투른 운전이나 차의 조그만 손상에도 지나칠 정도로 화를 낼 만한 사람이다. 아버지와의 관계는 좋다. 그는 아버지가 대단히 성공한 사람이라는 데 감탄하고 있다. 그 밖의 해석상의 재주 없이도 그 꿈이 아버지에게 극도로 불리한 이미지를 제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면 이 꿈이 아들에게 주는 의미에 대한 물음에 어떤 식으로 대답해야 하겠는가? 그와 아버지와의 관계는 그저 겉으로만 좋은 것이고, 실제로는 과보상된 저항에서 나온 것일까?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이 꿈에 긍정(플러스) 표지를 주어야 할 것이다. 즉, 우리는 그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른다. "이게 너와 아버지와의 진정한 관계이다." 그러나 아들과 아버지와의 실제 관계에서 신경증적 양가성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그 젊은 청년의 감정을 그런 파괴적인 사고방식으로써 부담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 치료면에서 보면 그것은 한마디로 실수이다.

실제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다면, 꿈은 왜 인공적으로 그런 있을 법하지 않은 이야기를 만들어서 아버지를 깎아내리는가? 꿈꾼 사람의 무의식에 그런 종류의 꿈을 만들어내는 어떤 경향이 존재하는 게 틀림없다. 그렇다면 그가 정말 질투나 그 밖의 열등한 동기로 인해 저항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까? 아주 예민한 젊은이들에게는 어떻게 위험한 일이지만, 우리가 그의 양심에 부담을 주기 전에 차라리 한번 물어보기로 하자. 왜가 아니고 무슨 목적으로 그가 그런 꿈을 꾸게 되었는지를. 이에 대한 대답은 이렇 것이다. 그의 무의식이 공개적으로 아버지를 낮추려 든다. 우리가 이 경향을 보상적 사실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결국 그와 아버지의 관계가 좋을 뿐 아니라, 심지어 너무 좋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 환자는 실제로 프랑스 사람들이 아버지의 아들 fils à papa이라 부르는 사람이다. 아버지는 그의 인생의 너무나 큰 보증인이다. 그리고 꿈꾼 사람은 아직도 내가 임시적 삶이라고 부른 그런 삶을 살고 있다. 그가 아버지로 인해 자신의 현실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특히 그가 지닌 위험 때문이었다. 그래서 무의식이 감히 인위적인 모욕을 가해 아버지를 끌어내리고 꿈꾼 사람을 끌어올렸던 것이다. 물론 그것은 부도덕한 방법이다. 식견 없는 아버지라면 물론 이에 화를 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합목적적인 보상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들을 아버지와 대결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며, 그렇지 않고서는 그가 결코 자신에 대한 각성에 도달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언급한 해석은 사실 타당했다. 그것은 상황을 정확하게 맞추었던 것이다. 즉, 그 해석은 꿈을 꾸는 사람의 자발적인 동의를 이끌어냈고, 아버지나 아들에게 실제로 존재하는 어떠한 가치도 손상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이런 해석은 오직 부자 관계의 의식적 현상 전체를 주의깊게 밝힘으로써 가능했다. 의식 상황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면 꿈의 진정한 의미는 유보된 채 있었을 것이다.

꿈의 내용을 동화함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은 의식적 인격의 실제 가치를 상처입히거나 파괴하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무의식을 동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남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무의식을 인정하는 데 중요한 것은 밑의 것을 위로 향하게 함으로써 그것이 고치고자 하는 것과 똑같은 상태를 만들어내는 불세비즘적 실험이 아니다. 그러므로 의식적 인격의 가치가 남아 있도록 단단히 주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무의식의 보상은 오직 그것이 통합적인 의식과 협동할 때야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동화 과정에서는 결코 이것 아니면 저것 Entweder-oder의 양자택일이 아니고 항상 이것이든가 또는 저것 Entweder und Oder이 문제이다.

그때그때의 의식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는 것이 꿈의 해석에서 필수적인 것처럼,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꿈의 상징성과 관련하여 꿈꾼 사람의 의식의 철학적·종교적 그리고 도덕적 확신에 주목하는 일이다. 실제 치료 현장에서는 꿈의 상징성을 증후학적으로, 다시 말해 확증된 성격의 징표나 증상으로 보지 말고 진정한 상징으로, 즉 의식 속에서 아직 인식되지 못한, 개념적으로도 설명되지 않은 내용의 표현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 여기에 더하여 꿈의 상징성이 그때그때의 의식 상황과 관계 있는 것으로 볼 필요가 있다. 실제 치료 현장에서 그것을 권할 만하다. 이론적으로는 비교적 확증된 상징이 존재하지만 그것을 해석할 때는 그 상징이 내용상으로 이미 알고 있는 것, 개념상으로 설명 가능한 것을 암시하지 않도록 매우 엄격하게 조심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비교적 확실한 상징이 없다면 무의식의 구조를 결정할 만한 것도 전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만약 그럴 경우 우리가 어떻게든 붙잡고 특색을 표시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내가 비교적 확실한 상징들에 막연한 특성의 내용을 부여하는 것이 아마 이상하게 보일지 모른다. 상징들이 그런 막연한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상징이 아니고 표징 Zeichen이거나 증상이다. 알다시피 프로이트 학파는 확실한 성적 상징들, 즉 표징을 가정하고 그것에 표면상 분명한 성적 내용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프로이트의 성 개념은 엄청나게 확대할 수 있고 매우 막연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모든 것이 그 개념 속에 포함될 정도이다. 그 단어는 알고 있는 단어이지만 그것이 가리키는 것은 미지의 X나 마찬가지이며, 그것은 생리적 선腺 활동과 가장 숭고한 심혼의 번득임이라는 두 극단 사이를 현란하고도 불명확하게 동요시킨다. 그러므로 나는 알려진 단어에 의해, 또한 알려진 사실을 가정할 수 있다는 착각에 기초한 독단적인 확신에 현신하기보다 상징이 인식하기 어려운, 미지의, 궁극적으로 결코 완전

히 가늠할 수 없는 크기를 가리킨다는 견해를 선호한다. 음경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는 남근 상징을 예로 들어보자. 정신의 관점에서 보면 음경도 크라네펠트가 최근 연구¹에서 설명한 대로 규정짓기 어려운, 그 이상의 내용을 위한 의미상意味像이다. 그러나 남근 상징을 아주 자유롭게 다루었던 원시인이나 고대인에게도 의식적儀式的 상징으로서의 남근Phallus과 음경Penis을 혼동한다는 것은 결코 생각지 못했던 것이다. 남근은 언제나 창조적인 마나Mana, 레만의 표현을 빌리자면 '비상한 효력을 가진 것', 의료 및 풍요의 힘으로서 그것은 황소, 나귀, 무화과, 요니Yoni, 솟음소, 번개, 말발굽, 춤, 발에서의 마술적 동침, 월경, 그리고 꿈속에서와 똑같이 그 밖의 많은 비유로 표현된 것이다. 이 모든 비유, 또한 성욕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것'은 규정하기 어려운 성격을 가진 원형적 상으로, 심리학적으로 이에 가장 가까운 상징은 아마 원시적 '마나'(魔力: 남해 여러 섬의 원시 종족의 신적 존재자—역주) 상징일 것이다.

이 모든 상징들은 비교적 확실하다. 그러나 우리는 구체적인 개인의 사례 분석의 어떤 경우에도 실제로 상징이 그런 식으로 해석되어야 할 아무런 선험적 확신은 결코 가지고 있지 않다.

실제로 필요한 것은 전혀 다른 것일 수 있다. 물론 우리는 하나의 꿈을 이론적으로, 즉 과학적으로 남김없이 해석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그 상징을 원형에 연관시킬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치료 현장에서는 그것이 바로 잘못일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순간의 환자의 심리적 상황은 아마 꿈의 이론으로 주의를 돌리는 것 말고 다른 모든 것을 필요로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실제 분석에서는 무엇이 의식 상황에 관련

되는 상징의 의미인지에 주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시 말해서 상징을 마치 그것이 확실하지 않은 듯이 다루는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미리 알고자 하고 아는 척하는 마음을 포기하고, 그것이 환자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한다. 물론 그렇게 할 때 이론적인 해석은 중도에 그치게 되거나, 심지어 시작 단계에서 멈추게 되기도 한다. 그러나 임상가가 확실한 상징들을 너무 많이 다루면 그는 그 일을 단순한 일과처럼 취급하게 되고, 위험한 독단에 빠지게 되어 흔히 환자의 문제를 못 보게 된다. 유감스럽게도 지금까지 말한 것의 예시는 포기하는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예 자체가 자세한 설명을 요하는데, 제한된 시간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와 같은 일에 관해서 이미 나는 충분한 자료를 발표했다.

이미 치료 초기에 꿈이 무의식의 원대한 전체 기획을 의사에게 밝히는 경우가 흔히 있다. 의사는 비교적 확증된 상징의 지식을 통해 이런 통찰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꿈의 심오한 의미를 환자에게 분명히 하는 것은 치료상의 실제적인 이유로 아직은 불가능하다. 여기서도 우리는 실제적인 고려 때문에 제약을 받는다. 예후나 진단을 내리는 데 꿈의 전체 계획에 대한 통찰은 큰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나는 언젠가 17세 소녀의 상담을 의뢰받은 일이 있다. 한 전문의는 소녀의 병이 진행성 근육위축증의 초기 단계라고 추정했고, 다른 전문의는 히스테리라는 의견이었다. 후자의 견해 때문에 내가 관여하게 된 것이다. 신체적으로는 상태가 수상쩍었다. 그러나 실제로 히스테리적인 것도 있었다. 나는 꿈을 꾸었는가를 물었다. 환자는 곧 대답했다. "네, 무서운 꿈을 꾸었어요."

나는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나는 밤에 집을 향해 옵니다. 모든 게 죽은 듯이 고요했습니다. 거실로 향하는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나는 엄마가

¹ W. M. Kramfeldt, "Komplex und Mythos", in C. G. Jung, *Seelenprobleme der Gegenwart*, 1931, Olten, 1973.

상들리에에 걸쳐진 채 열린 창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흔들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곤 꿈을 꾸었는데, 밤에 집에서 무서운 소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살펴보았어요. 겁에 질린 말이 집 안을 여기저기 마구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마침내 복도로 가는 문을 발견하고 복도 창문을 통해 4층에서 거리로 뛰어내렸습니다. 나는 그 말이 바닥에 부서진 채 누워 있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꿈의 범죄적 성질만으로도 벌써 주목을 끌게 만드는 꿈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도 공포스런 꿈을 꾸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개의 주된 상징, 즉 '어머니'와 '말'의 의미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이 두 개는 동격이다. 왜냐하면 둘은 같은 행위를 하기 때문이다. 둘 다 자살하고 있다. '어머니'는 하나의 원형이다. 그것은 원천, 자연, 수동적인 생산자(그래서 물질materia)를 암시하며, 그러므로 물질적 자연, 자궁 그리고 식물성 기능이고, 그래서 또한 무의식, 자연스러움, 충동성, 생리적인 것, 몸, 우리가 그 속에서 살거나 또는 우리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어머니'는 또한 그릇, 빈 형태(자궁처럼)이다. 품에 안고 양분을 주는 것, 그래서 또한 의식의 토대를 표현하는 것이다. 내적 존재 또는 내포된 존재는 어둠, 밤, 그리고 불안(좁은 것)과 결부되어 있다. 이렇게 제시함으로써 나는 지금 모성 개념의 신화적·언어사적 변화의 상당 부분을, 또는 중국 철학에서 음양설의 음 개념의 중요한 부분을 재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그 17세 소녀의 개인적인 획득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언어 속에 아직 살아 있는 집단적 유산, 다른 한편으로는 정신의 유전적 구조, 그래서 어느 시대이나 어느 민족에서나 항상 되풀이해서 발견되는 유산이다.

그렇게 누구나 잘 아는 것처럼 들리는 '어머니'라는 말은 외전상 가장 잘 알려진 개인적인 어머니, '나의 어머니'에 관계된다. 그러나 상

징으로서 어머니는 개념적으로 설명하는 것에 완강하게 반대하는 심적 배경에 관계된다. 우리는 그것을 다만 아주 막연하게 예감상으로 감추어진, 소박한, 신체적 삶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것 역시 너무 좁고 너무나 많은 필수적인 부수적 의미를 배제하고 있다. 그 토대를 이루는 정신적·원초적 사실은 엄청나게 복잡하므로 오직 가장 넓은 관조로써 파악될 뿐이며,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저 예감으로 파악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니 상징이 필요했던 것이다.

모성 상징에 대해 여기서 찾아낸 표현을 꿈에 적용하면 그 해석은 이렇다. 무의식적인 삶이 스스로를 파괴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의식에 대한 무의식의 메시지이며, 귀가 있는 자는 누구나 그 알림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말'은 신화와 민담에 널리 등장하는 원형이다. 그것은 비인간적인 정신, 하인간적인 것, 동물적인 것, 그러므로 무의식적 정신을 대변한다. 그리하여 민간에서 말은 천리안이며 총명하고 때로는 사람의 말을 하는 동물이라고 간주되고 있다. 나르는 동물로서 말은 모성 원형에 가장 가까운 관계를 가지고 있다(죽은 영웅을 전사자의 낫이 모이는 천당인 발할로 나르는 전쟁의 여신 발큐레 들, 그리고 트로이의 목마 등). 인간의 하부에 있는 것으로서, 그것은 자궁과 거기서 올라오는 충동의 세계를 표현한다. 말은 역동이며 수레이며, 충동처럼 사람을 실어 나른다. 그러나 말은 충동처럼 공황의 지배를 받는다. 그에게는 높은 의식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말은 마술, 즉 비합리적·주술적 작용과 관계가 있는데, 특히 죽음을 예고하는 검은(즉 밤의) 말이 그러하다.

그러므로 '말'은 '어머니'와 동격이며 어머니는 근원적 삶인데, 말은 동물적·신체적 삶이라는 점에서 의미상의 약간의 변위變位가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표현을 꿈의 문장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해석이 나온다. 동물적 생활이 스스로를 파괴한다.

그러니까 두 개의 꿈이 말하고 있는 것은 거의 같다. 다만 일반적으로 그런 것처럼, 두번째 꿈이 더욱 특수하게 이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독자들은 꿈의 특별한 섬세함을 눈치챌 줄 안다. 꿈은 개체의 죽음을 말하고 있지 않다. 알다시피 사람들이 자신의 죽음을 꿈꾸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다지 심각하지 않다. 만약 정말로 죽음이 문제된다면 꿈은 다른 언어로 말한다.

그러므로 두 개의 꿈은 죽음으로 귀착되는 심한 기질적 질병을 암시하고 있다. 이 예후는 곧 증명되었다.

이제 비교적 확실한 상징의 문제에 관련하여 말하자면, 이 사례가 이 상징의 성질에 대해 어느 정도 대략적인 생각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상징은 수없이 많다. 그것은 모두 각각 미세한 의미상의 변위를 나타내고 있다. 상징의 성질에 대한 과학적인 확인은 오직 비교신화학적·민속학적·종교적 및 언어사적 연구로써 가능하다. 발전사적으로 구축된 정신의 본체는 우리의 의식 속에서보다 꿈속에서 그 모습을 더 잘 드러낸다. 꿈에서는 꿈이 가지고 있는 가장 원시적 자연에서 기원된 이미지들과 충동(말)이 발언하게 된다. 그리하여 우리는 무의식적 내용을 의식에 동화함으로써 당장의 의식 생활, 그리고 자연법에서 너무도 빛나간 의식 생활을 자연물과 다시 균형을 갖추게 하여 환자로 하여금 다시 자신의 자연스러운 고유의 법칙성을 갖도록 해준다.

나는 이곳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만을 제시했다. 강연이라는 형식은 한계가 있어 하나하나의 벽돌을 모아서 건물을 다시 세우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 건물은 낱알의 무의식에 대한 분석에 의해 세워지며 이 작업은 전체 인격의 궁극의 재현이 이루어질 때까지 수행될 것이다. 순차적인 동화의 길은 의학적으로 특별히 관심을 끄는 치료 성과를 훨씬 넘어서는 것이며, 결국 아득한 목표로 인도한다. 그것은 아마도 생명을 낳게 한 최초의 동기, 즉 전체 인간의 완전한 실현, 개성화일 것이

다. 우리 의사들은 이 어두운 자연의 과정을 처음으로 의식적으로 관찰한 사람이 되었다. 그러나 우리 의사들은 보통 이러한 인격 발전의 병적인 장애 부분만을 보고 그가 치유되면 환자를 잊어버린다. 그러나 병에서 치유된 뒤에 비로소 정상적인 과정을 공부할 수 있는, 수년, 수십년이 걸리는 진정한 기회가 있게 될 것이다. 의사가 무의식적인 발전 경향의 목표에 관한 몇 가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심리학적 통찰을 병적인 장애의 시기로부터 취하지 않는다면, 꿈을 통해서 의식으로 매개된 과정의 인상이 그리 혼란스럽지 않을 것이며, 상징들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 분명히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내 생각에, 의사들은 모든 정신요법적 방법, 특히 분석적인 치료법이 하나의 목표 지향성과 관련된 과정으로 들어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분석적 치료법은 때로는 이곳에서, 때로는 저곳에서 그리고 같은 과정의 개별 단계들을 노출시키며 그때그때의 방향들이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나하나의 분석은 단지 기초적 과정의 한 부분이나 하나의 측면만을 가리킬 뿐이다. 그러므로 증례 비교는 처음에는 다만 절망적인 혼란을 일으킬 뿐이다. 그래서 나는 기본적인 것과 실제적인 것에 한정해서 이야기하는 것 또한 마다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오직 매일매일의 경험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것에서 우리는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 동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번역: 이부영